

김 종자

수산물관측 제 58호 2017년 10월

2017년 10월 10일 발행 | 등록번호 ISSN 2384-2636 | 발행·편집인 양창호 |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
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| Tel. (051) 797-4500 | Fax. (051) 797-4529
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.kmi.re.kr | 인쇄 애드원플러스 070-4390-3812

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을 통해 당 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foc.re.kr>)에 접속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페이지(<http://m.foc.re.kr>)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김

2017년 종묘 생산량 작년보다 7% 많은 460만 상자 추정 종묘 판매가격 작년보다 다소 높아

- 2017년 김 종묘 생산량 작년 대비 7% 증가한 460만 상자
 - 잇바디돌김과 일반김 신품종 작년보다 늘어
- 종류별 종묘 생산 일반김 신품종에서 작년보다 크게 증가
 - 양식어가에서 신품종 선호도 높아 생산량 증가세
- 김 종묘 판매가격 작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
 - 모든 품종 판매가격 상자당 3,000~3,500원에 거래
- 2018년 김 종묘 생산량 올해보다 증가 전망
 - '내년 종묘 배양 늘릴 것이다' 라는 생산어가 17% 차지

〈김 종자 휴간 공지〉

김 종묘 생산이 종료됨에 따라 「김 종자 수산물관측」은 휴간되며, 2018년산 어기가 시작되는 2018년 8월에 다시 발간될 예정입니다. 월보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관측 요원 및 자문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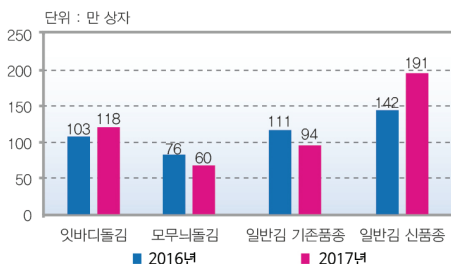


종묘 생산동향

2017년 김 종묘 생산량 작년 대비 7% 많은 460만 상자

- 2017년 김 종묘 생산량은 작년보다 7.2% 많은 463만 상자로 추정됨. 이는 지속적인 김 수출 증가로 김 시설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
- 특히 이 중 양식어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반김 신품종의 종묘 생산량은 191만 상자로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음

〈 김 종묘 생산량 추이 〉



주 : 2017년은 잠정치이며, 1상자는 500g 기준임

* 당 센터 추정치

채묘용 종묘도 작년보다 8% 많은 450만 상자

- 2017년 채묘용 종묘*는 작년보다 7.6% 증가한 450만 상자로 조사되었음. 특히 자가 사용 김 종묘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22만 상자로 나타났음
- ※ 채묘용 종묘는 판매 및 자가 사용분을 합한 것임
- 종류별로 보면 일반김 신품종은 181만 상자로 작년보다 34.9% 늘었는데, 이는 다수확 가능한 종묘로써 김 양식어가들에게 선호도가 높기 때문임. 또한 잇바디돌김의 종묘 생산량도 작년보다 14.5% 많은 117만 상자였음

〈 품종별 김 종묘 생산 동향 〉

(단위 : 만 상자, %)

구 분		합 계	돌김류		일반김(방사무늬김)	
			잇바디돌김	모무늬돌김	기존품종	신품종*
2016년 (A)		418 (15)	102 (4)	75 (6)	107 (0)	134 (6)
2017년	채묘용 종묘(B)	450 (22)	117 (5)	58 (7)	94 (1)	181 (8)
	이월 · 폐기	13	1	2	0	10
증 감 률 (B / A)		7.6	14.5	-22.4	-12.1	34.9

주 : 1) 2017년은 잠정치이며, ()은 자가 사용분임

2) 신품종에는 2012년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‘해풍 1호’가 있음. 이 외에도 2016년까지 품종보호권 출원 혹은 심사 중인 신품종 등 총 22품종이 있으며, 일반김(방사무늬김)계통의 ‘해풍 2호’와 ‘수과원 104호’, ‘수과원 108호’ 등임

* 당 센터 추정치

■ 종묘 구매량, 잇바디돌김·신품종은 진도, 기존품종은 전북·충남에 집중

- 지역별 김 종묘 구매량을 조사한 결과, 일반김 기존품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요 김 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되었음
- 종류별로는 잇바디돌김과 일반김 신품종의 경우 진도지역에서의 구매량이 전체의 약 50%를 차지했으며, 일반김 기존품종의 경우 충남과 전북지역에서 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50% 이상을 차지했음
- 한편 고흥지역은 주요 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종묘 구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. 이는 채묘 시 종묘 사용이 비교적 적은 육상채묘를 주로 하는데다, 동아채묘를 하는 어가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

〈 품종·지역별 김 종묘 구매량 점유율 〉

(단위 : 만 상자)

구 분		돌김류		일반김(방사무늬김)	
		잇바디돌김	모무늬돌김	기존품종	신품종
합계		112 (98)	51 (69)	93 (107)	173 (128)
전 남	소계	102 (96)	49 (69)	30 (38)	146 (121)
	해남	22 (17)	15 (25)	7 (4)	39 (28)
	진도	50 (47)	7 (9)	7 (12)	63 (58)
	고흥	0 (0)	0 (0)	4 (10)	8 (6)
	신안	16 (18)	14 (15)	1 (1)	20 (12)
	완도	13 (12)	3 (3)	9 (6)	14 (13)
	기타	2 (1)	10 (18)	0 (5)	2 (4)
전북		5 (2)	1 (0)	23 (35)	8 (4)
충남		2 (0)	0 (0)	26 (21)	15 (3)
기타		3 (0)	0 (0)	14 (14)	5 (0)

주 : 1) 구매량은 종묘 판매량(구매 예정량 포함)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, 자가 사용분은 제외한 것임

2) ()는 2016년 결과이며, 전남기타는 전남 강진·장흥·목포·무안 등이며, 기타지역은 경기도와 부산 등임

* 당 센터 설문조사 결과

■ 종묘 판매가격, 작년보다 다소 높은 상자당 3,000~3,500원에 거래

- 2017년 김 종묘 평균 판매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높은 상자당 3,000~3,500원에 거래되었음. 이는 작년보다 많은 종묘 생산에도 불구하고 김 시설량이 늘면서 종묘 수요가 다소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됨
- 종류별로 살펴보면 잇바다돌김과 기존품종의 판매가격은 작년과 비슷했는데, 모무늬돌김과 일반김 신품종은 작년보다 다소 상승했음

〈김 종묘 판매가격 동향〉

(단위 : 원/상자, %)

구 분	돌김류		일반김(방사무늬김)	
	잇바다돌김	모무늬돌김	기존품종	신품종
2015년	2,500	2,500	2,900	3,100
2016년(A)	3,000	2,900	3,300	3,400
2017년(B)	3,020	3,090	3,300	3,500
증감률(B/A)	0.7	6.6	0.0	2.9

* 당 센터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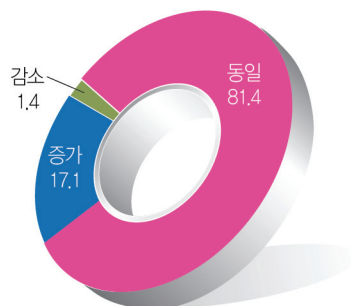
전 망

■ 2018년 김 종묘 생산량, 작년보다 증가 전망

- 김 종묘 생산여가를 대상으로 2018년 배양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전체의 81.4%는 ‘2017년과 동일하다’ 라고 응답했음. 한편 17.1%는 ‘늘릴 예정이다’ 고 답해 2018년 종묘 생산량은 2017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이는 최근 지속적인 김 수출 증가로 매년 김 시설의향이 높을 뿐 아니라 종묘 수요 또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임

〈2018년 김 종묘 배양의향〉

단위 : %



* 당 센터 조사결과(2017년 9월)

■ 2018년 김 종묘 배양시기, 3월 중·하순에 집중 예상

- 2018년 첫 김 종묘 배양시기(유리사상체의 패각 이식시기)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50% 이상은 3월에 시작할 것으로 답했음. 특히 3월 중에서도 주로 중·하순경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
- 한편 돌김류 첫 배양은 종묘 생산여가들의 20% 이상이 올해 연말까지 마칠 예정임



수산물관측 전망정보는 표본조사 결과, 수급분석모형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해황 및 수급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 또한 본문의 생산량, 가격 및 수출입량 등은 잠정치임